

# 사서직의 직업 이미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fessional Image of Librarianship

이 은 철(Eun-Chul Lee)\*  
김 갑 선(Gap-Sun Kim)\*\*

### 목 차

- |                  |                       |
|------------------|-----------------------|
| 1. 서론            | 3. 1 사서직 이미지 유형의 범주화  |
| 2. 연구의 방법 및 설계   | 3. 2 사서직 이미지의 유형별 특성  |
| 2. 1 Q-방법론의 유용성  | 3. 3 사서직 이미지의 유형별 차이점 |
| 2. 2 연구의 방법 및 설계 | 3. 4 사서직 이미지의 유형별 공통점 |
| 3. 수집자료의 분석      | 4. 결론 및 제언            |

### 초 록

본 연구는 사서들의 주관성 연구를 통해 사서들이 지각하는 사서직 이미지의 유형과 구조를 식별하고, 그 차이점과 유사점을 탐구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Q-방법론이 적용되었으며, 사서들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서면조사와 관련문헌의 조사를 통해 35개의 진술문이 구성되었고, 24명의 공공 및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독특하지만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현재의 시공간적 맥락을 반영한 4개의 사서직 이미지 유형, 즉 1) 사서직에 양면(兩面) 가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현실인식형 2) 자긍심형 3) 정보기술 수용의 진보형 4) 현실비판형 등으로 식별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모두 사서직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사회적으로 적합성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는 사서직의 사회적 역할과 정보문제해결의 조력자라는 측면을 사서직 이미지로 공유하고 있었다.

### ABSTRACTS

This study is an attempt to explore the professional image of librarianship through librarians' subjectivity using Q-methodology based on intraindividual difference in significance. The study identified four types of the professional image of librarianship and discussed their relationship; the ambivalent, the prideful, the advanced, and the critical. Each types are unique, not inter-exclusive characteristics reflected the context of the present. Also, all types have a positive image toward the librarianship.

키워드: 사서직, 직업 이미지, 사서직 이미지, Q-방법론  
librarianship, professional image, Q-methodology

- \* 성균관대학교 인문학부 문헌정보학전공 교수(eclee@skku.ac.kr)
- \*\* 한국사서교육원 강사  
논문접수일자 2002년 8월 9일  
게재확정일자 2002년 9월 12일

## 1. 서론

근대적 의미의 문헌정보학이 국내에 도입되어 사서직의 배출이 본격적으로 공식화된 이래 도서관 현장에 근무하는 사서직 종사자는 2000년 12월 현재 9,337개 도서관에 12,964명에 이르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2001, 5). 이처럼 사서직 종사자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도서관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사회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도서관과 도서관의 운영주체인 사서직 종사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사서직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전통적인 양적 방법에 근거한 사서직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와 최근에 이르러 대중문화에 나타난 사서직에 관한 고찰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사서직에 관한 다양한 접근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진 바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미지란 일반적으로 개인이 어떠한 대상에 대하여 갖는 심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구체적인 대상물 뿐 아니라 추상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자기 나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미지를 상(像), 영상(影像), 표상(表象), 지각상(知覺像)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마케팅 분야에서는 개인이 어떠한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신념, 생각 및 인상의 총합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이미지에 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이를 종합하면, “개인이 특정 대상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인 신념, 생각, 인상의 총체로서 그 대상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행동을 지배하는 것(하봉준 1999, 51)”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탐구

하고자 하는 사서직의 직업적 이미지는 전문직으로서 사서직에 관한 신념이나 관념 및 인상의 총합으로, 사서가 지각하고 있는 사서직에 대한 가치, 신념, 생각, 느낌, 태도 등을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사서직의 직업적 이미지는 직무만족 관련연구들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도출해 낼 수 있으나, 이미지 관련 맥락에서 언급될 수 있는 연구들로서는 이용자(Hernon & Pastine 1977, Harris & Sue-Chan 1988, Morrissey & Case 1988) 또는 도서관학과 학생들이 지각하는 사서직 인식에 관한 연구(이은철 1987)와 대중문화(소설과 영화)에 나타난 사서직 이미지에 관한 고찰(조찬식, 박민영 1999) 정도가 있을 뿐이다. 사서직 이미지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로는 남성 사서들만을 대상으로 사서직의 여성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Carmichael 1992)와 IFLA가 국제적인 단위에서 사서직을 대상으로 사서직의 직업 이미지를 연구(Prins & Gier 1995)한 것이 있다.

본 연구는 도서관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환경적 변화로 인해 전환적 단계에 처해 있는 현직 사서직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서직의 직업적 이미지를 논의하려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에서 출발하고 있다.

첫째, 현직 사서들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사서직의 직업적 이미지들을 어떠한 유형으로 범주화 할 수 있는가?

둘째, 현직 사서들의 사서직 이미지에 대한 유형은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셋째, 현직 사서들의 사서직 이미지에 대한

유형은 각각 어떠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사서직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자신들에 관한 직업적 이미지의 유형을 범주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들이 사서직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 인식과 사서직에 대한 갈등요인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자 하는데 있다. 사서직의 이미지 탐구는 사서직의 본질과 사서직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이며, 더불어 끊임없이 변화되는 시공간적 맥락에서 사서직의 정의를 재검토해보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주제적이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문헌정보학분야에서 비교적 심도있게 직접적으로 시도된 바 없는 사서직을 대상으로 한 사서직의 직업 이미지 연구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그 관리방안의 집중적 탐구 분야인 문헌정보학에서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인간의 주관성에 관한 연구라는 점이며 셋째, 따라서 문헌정보학 연구에서 비교적 적용되어진 바가 없는 Q-방법론의 시도와 적용이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 2. 연구의 방법 및 설계

### 2.1 Q-방법론의 유용성

Q-방법론은 사회과학을 연구함에 있어 설명과 이해, 정량적 연구와 정성적 연구, 객관성과 주관성, 실증과 반실증이라는 이분법적

대립을 극복하고자 William Stephenson (1953)에 의해 고안된 심리적인 조사방법론이다. "Q-방법론은 주관성 측정을 위해 고안된 통계모형이고, 동시에 심리학적 이론이며 또한 과학철학"(김홍규 1990, 39)으로 현재 커뮤니케이션학, 교육학, 심리학, 광고학, 정치학, 정책학, 정신의학, 간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어지고 있다. Q-방법론 운용에서의 핵심은 연구자의 조작적 정의가 아니라 응답자 스스로 의견과 의미구조를 만들어가는 자결적 방법이라는데 있다. 즉 Q-방법론은 응답자 스스로의 자극(진술문)을 서로 비교하여 순서를 정함으로써 이를 모형화시켜 가설의 발견과 가설 생성에 초점이 주어진다라는 점이다.

본 연구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의 타당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인간의 심리적 특성규명을 위한 행동과학적 접근 방법으로서 기존의 R-방법론과 Q-방법론의 차이를 통계학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홍규 1990, 1993, 최현철 1993, 백용덕 1999).

R-방법론은 관찰가능한 대상자의 속성이나 특성을 연구자에 의한 가설설정과 조작적 정의를 통하여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요인분석 기법에 의해 규명함으로써 개인간의 차이(interindividual difference)를 분석하는 기법이다(김홍규 1992). 따라서 개인간의 차이 규명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R-방법론은 사람과 반응을 분리시킴으로써, 유사한 특성을 지닌 집단의 특성을 규명함에 어려움이 있다.

이처럼 R-방법론이 양적인 분석에 제한하는 방법이라면 Q-방법론은 양적인 접근 뿐만

아니라 질적인 접근을 동시에 시도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질적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백용덕 1999, 297).

Q-방법론은 연구자에 의한 조작적 정의가 아니라 일정한 주제에 대해 응답자들의 주관적 견해를 그 주제와 관련된 진술문에 대한 그들의 동의 정도에 따라 배열하는 자아 준거적인 설문 방식이다. 따라서 이렇게 식별된 Q-요인은 개인간의 차이가 아니라 한 개인 내에서 중요성의 차이(intraindividual difference in significance)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Q-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성(subjectivity)을 강조하는 개인의 내적 구조(intra-structure)를 연구하는데 유용하다. 이때 Q-방법론은 Q-분류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와 요인분석(factor analysis)에 의거한다. 요인분석 결과 생산된 Q-요인은 비슷한 견해를 가진 응답자군(群)을 가르키며 일정한 주제에 관한 유사한 관점을 의미한다. Q-방법론이 중요시 하는 것은 인구학적 요인 등 객관적인 요인 자체가 아니라 상호 구별되는 주관적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 유형별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Q-방법론에서 도출된 일반적인 유형들은 객관적인 조건과 별도로 후속 연구들과 실용적인 면에서 폭넓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수의 사서들을 대상으로 사서직의 직업적 이미지에 관한 그들의 주관적 인식을 탐구하고 유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어떤 이론에 입각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보다는 오히려 현상에서 출발하여 가설을 생성해 내는 귀납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Q-방법론의 적용이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 2. 2 연구의 방법 및 설계

### 2. 2. 1 Q-표본의 선정

#### 2. 2. 1. 1 Q-모집단(concourse)의 구성

사서직의 직업적 이미지에 관한 자아참조적(self-referent) 진술문인 Q-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Q-모집단이 구축되어야 한다. 자아참조적 진술문이란 사실(fact)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응답자의 감정에 투사된 의견에 관한 진술문이다. Q-모집단을 구성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현직사서들을 대상으로 전자메일을 통한 개방형 서면 조사와 사서직 관련 연구의 문헌조사를 수행하여 총 723개의 항목을 수집하였다. 현직사서들을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에서는 사서직의 직업적 이미지를 도출하기 위해 사서직에 관한 담론들을 1) 사서직에 종사하면서 느끼는 보람, 가치, 자부심, 장점 2) 직업적인 열등감, 회의, 불만족, 단점 3) 사서직의 발전 방향, 향후 추세, 보완되어야 할 점 4) 사서직이 갖추어야 할 품성, 자질, 자격 등의 4가지로 유형화하여 도서관메일링리스트(<http://www.delias.donggong.ac.kr/mailling/>; 이하 도메리)를 이용해 2회에 걸쳐 서베이를 수행(2002. 1. 16-2. 2)하였다. 그 결과 36명의 현직 사서들로부터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377개의 진술문 형태로 정리하였으며, 사서직의 직무만족도와 사서직 관련 연구의 문헌조사를 통해 346개의 항목을 수집하여 Q-모집단은 72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 2. 2. 1. 2 의견항목(Q-sample)의 선정

Q-모집단인 723개의 의견항목을 상기의 4개 범주로 분류하여 중복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것은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통합 또는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Q-진술문을 35개 항목으로 선정하였다(부록 참조).

2. 2. 2 조사대상자(P-sample)의 선정

Q-방법론은 개인간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 내의 의미성 또는 중요성의 차이(intraindividual difference in significance)를 다루는 주관성을 강조하는 질적 조사연구이므로 주로 소표본원칙(20명~60명)에 근거한다(김홍규 1990, 45). 따라서 P-표본인 조사대상자는 도 메리의 회원으로서 본 연구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전국의 대학 및 공공도서관의 현직사서들을 임의 표출하여 연구참여에 동의한 27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에게 Q-분류를 위한 설명서, Q-분류지, 사서직 이미지에 관한 35개의 진술문 리스트 그리고 참여자의 인구학적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지가 포함된 Q-sort kit을 전자메일을 통해 2002년 2월 14일부터 2월 24일사이에 배포·회수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27명으로부터 자료가 회수되었으나 3명은 답변 불충분으로 제외하여 분석대상이 된 것은 총 24명의 자료로 이를 QUANAL pc-program으로 분석하였다.

2. 2. 3 Q-분류

Q-분류란 한 개인이 어떤 이슈나 문제에

대한 의견이나 느낌을 모형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말하는데, 하나의 Q-sort는 한 개인의 주관성을 나타내는 모형(model)이 된다. Q-분류에서의 초점은 응답자가 어떤 항목(진술문)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하는가에 있지 않고 응답자가 어떻게 항목을 마음속에서 순서를 정하는가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에게는 35개의 사서직 관련 진술문을 읽고 이를 의견의 동의 정도에 따라 <그림 1>과 같은 강제 정상 분포방식에 의해 9점 척도상에 분류하도록 하였다.

3. 수집 자료의 분석

현직 사서들의 주관성 구조에 따라 사서직의 이미지는 4가지 유형으로 식별되었으며, 이를 유형별로 분석하기 위해 1) 각 유형별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을 중심으로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였고, 2) 각 유형별 진술문의 차이점을 비교하며 3) 각 유형별 진술문의 공통점을 검토하였다.

3. 1 사서직 이미지 유형의 범주화

본 연구는 사서직 이미지에 관한 주관성 유형을 범주화하기 위해 Q-방법론을 통한 인자

		N = 35							
	반대	중립							찬성
점수	1	2	3	4	5	6	7	8	9
진술문수	2	3	4	5	7	5	4	3	2

<그림 1> Q-분류 분포

분석을 적용했다. 인자분석에 있어서는 주인자법(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적용하고, 직각회전(varimax rotation)시켰다. 24명의 응답자는 모두 4개의 유형으로 의미있게 구분되었으며, 4개 유형의 인자를 보다 명확히 식별하기 위해 다시 재편인자행렬(re-ordered factor matrix)을 거쳤다. 그 결과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유형1>의 변량이 25.05%, <유형2>의 변량이 16.67%, <유형3>의 변량이 9.85%, <유형4>의 변량이 14.23%로 전체 변량이 65.80%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별된 Q-유형은 사서직 이미지에 관한 유사한 의견이나 생각, 태도를 가진 사서들로 묶여지기 때문에 각 유형들은 각각의 특성

<표 1> 재편인자 행렬표 (Re-Ordered Factor Matrix)

유형	순서	변인ID	인구학적특성						1	2	3	4	COM.	PURE
유형1 N=9	1	12	남	31세	강원	대학	5년	학사	.869	.039	-.125	.096	.782	.966
	2	1	여	33세	경상	대학	12년	준학사	.772	.136	.131	.027	.633	.942
	3	22	여	33세	서울	대학	9년	학사	.716	-.019	.077	.362	.651	.789
	4	20	여	40세	서울	대학	20년	학사	.721	.374	.078	.275	.742	.701
	5	16	여	31세	서울	대학	6년	학사	.678	.107	.442	.285	.748	.615
	6	24	여	26세	경기	공공	3년	학사	.662	.057	-.159	.574	.795	.550
	7	10	여	28세	경상	대학	5년	학사	.606	.545	.056	-.041	.669	.549
	8	7	남	51세	전라	대학	22년	학사	.665	.446	.296	.307	.823	.538
	9	21	여	32세	경상	공공	8년	학사	.494	.414	.326	.452	.726	.337
유형2 N=6	10	19	여	29세	서울	대학	7년	학사	.132	.765	.288	-.064	.690	.849
	11	13	남	35세	경상	대학	10년	학사	.242	.648	.041	.195	.518	.810
	12	4	남	45세	경상	대학	21년	석사	-.229	.585	.157	-.198	.459	.746
	13	11	남	30세	경기	대학	3년	학사	.341	.630	.316	.391	.765	.518
	14	8	여	36세	충청	공공	11년	학사	.249	.522	.247	.363	.527	.517
유형3 N=4	15	2	남	41세	경기	공공	15년	교육원	.479	.576	-.222	.266	.681	.487
	16	5	남	52세	충청	대학	27년	학사	.090	.112	.774	.071	.625	.959
	17	18	여	26세	서울	대학	1년	석사	-.279	.179	.567	-.207	.474	.678
	18	23	여	30세	서울	대학	7년	석사	.305	.400	.529	.285	.614	.456
유형4 N=5	19	14	남	36세	전라	공공	9년	학사	.505	.183	.528	.348	.689	.404
	20	3	여	29세	서울	대학	7년	학사	.173	-.029	-.008	.799	.669	.954
	21	6	여	39세	서울	공공	15년	석사	-.102	.613	.096	.628	.790	.499
	22	15	남	30세	서울	대학	1년	학사	.592	.040	-.098	.597	.719	.496
	23	17	여	38세	서울	공공	9년	학사	.398	.214	.127	.401	.381	.423
	24	9	여	31세	경기	공공	7년	학사	.392	.386	.264	.501	.622	.403
TOTALVAR	-	-	-	-	-	-	-	PERFACTOR	.2505	.1667	.0985	.1423	.6580	
	-	-	-	-	-	-	-	CUMULATIVE	.2505	.4172	.5157	.6580		
COM.VAR.	-	-	-	-	-	-	-	PERFACTOR	.3806	.2534	.1497	.2162	1.0000	
	-	-	-	-	-	-	-	CUMULATIVE	.3806	.6340	.7838	1.0000		

을 나타내게 된다. 유형1이 25.05%의 설명력을 가지므로 현직 사서의 사서직 이미지의 구조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의 재판인자행렬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유형1>에는 9명, <유형2>에는 6명, <유형3>에는 4명, <유형4>에는 5명이 각각 소속되었다. 유형에 따른 진술항목별 표준점수는 <부록>과 같다.

### 3. 2 사서직 이미지의 유형별 특성

#### 3. 2. 1 현실인식형: 유형1

유형1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은 적재량을 가지고 있는 유형으로 현직 사서들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사서직 이미지의 구조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표준점수인 Z-score +-1.00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1에 속한 응답자들이 강하게 동의하는 진술문 항목은 26, 16, 24, 20, 32 등이고 반대로 강하게 부정하는 항목은 1, 19, 35, 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진술문들의 공통의미를 찾아 검토해 보면, 유형1에 속하는 응답자들은 사서직에 관한 양가감정(ambivalent)을 가지고 있는 현실인식형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들은 정보봉사직이라는 사서직의 고유성을 강하게 긍정하되 사서직의 물리적 여건 및 사회적 위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며, 특히 소속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말해, 이들은 투철한 봉사정신(진술문 26)과 정보봉사의 제공(진술문 16)이라는 사서직의 전통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을 매우

<표 2> 유형1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1.00 이상)

번호	진술문	Z-Score
26.	사서의 자질은 투철한 봉사정신을 토대로 전문적인 주제배경, 폭넓은 교양과 정보기술 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22
16.	사회가 변해도 사서직의 고유한 본질은 정보제공 서비스에 있다고 생각한다	1.92
24.	주제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봉사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1.31
20.	사서나 도서관은 정보원을 이용하여 최종산물을 생산해 내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소속기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지 못하며 그 중요성을 인식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19
32.	사서는 도서관 업무지향적이기 때문에 소속기관의 의사결정권이나 행정권 등에서 소외당하는 경향이 많다고 생각한다	1.15
2.	이용자의 정보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가라고 생각하면 뿌듯하다	1.04
27.	사서업무는 전문적 교육 경험없이도 수행가능하다고 생각한다	-1.00
4.	도서관계 외에서는 사서직 종사자라고 밝히기가 망설여진다	-1.14
14.	사서직에서의 여성인력 우세성은 사서직 발전에 지체요인이 되어왔다고 생각한다	-1.32
6.	사서직이 소속기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종종 제외되는 경향은 사서직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고, 사서직무에만 전념하라는 조직적 배려라고 생각한다	-1.38
35.	사서직의 급여수준이나 승진제도 등 제 근무여건은 만족스럽다	-1.60
19.	사서직은 이용자들에게 전문가로서 존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1.80
1.	사서직은 전문가로서 사회적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1.93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사서직의 전문성을 인정한 조직적 배려(진술문 6)가 아닌, 사서직 업무의 비가시성(진술문 20)과 내부지향성(진술문 32)으로 인하여 소속기관의 의사결정이라는 권력 구조에서 소외되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인정(진술문 1, 19)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서직의 제 근무조건(진술문 35)은 불만족스럽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들은 주제전문 지식의 부족으로 업무수행시 어려움을 경험한 바 있으며(진술문 24) 사서직의 여성인력우세성이 사서직 발전의 지체요인(진술문 14)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3. 2. 2 자궁형: 유형2

Z-score  $\pm 1.00$  기준으로 유형2에 속한 응답자들이 강하게 동의하는 진술문 항목은 8, 26, 16, 31, 9 등이고 반대로 강하게 부정하는 항목은 4, 25, 5, 27, 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이러한 진술문들을 종합해보면, 유형 2는 정보서비스 및 정보서비스 가치 지향적이며 대외적인 자부심과 국가적 차원의 제도 확립으로 사서직의 전문성 확보를 주장하는 자궁형으로 명명할 수 있다. 이들은 사서직의 전문성 확립을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제도적

<표 3> 유형2가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 $\pm 1.00$  이상)

번호	진술문	Z-Score
8.	사서직의 전문성 확립을 위해서는 국가고시도입이나 주제 전문가 육성 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6
26.	사서의 자질은 투철한 봉사정신을 토대로 전문적인 주제배경, 폭넓은 교양과 정보기술 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0
16.	사회가 변해도 사서직의 고유한 본질은 정보제공 서비스에 있다고 생각한다	1.58
31.	사서직이 유지되려면 사회적으로 적합성있는 서비스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49
9.	사서직은 나의 적성과 가치관에 맞기 때문에 나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직종이다	1.21
2.	이용자의 정보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가라고 생각하면 뿌듯하다	1.12
17.	사서업무는 나의 창의성과 독자적인 판단력을 근거로 일을 처리하고 추진할 수 있어 행복하고 즐겁다	1.12
18.	우리 현실상 주제전문가 양성이 어렵다 보니 사서직은 명목상 전문직 일 뿐, 사서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1.02
21.	사서직에 대한 이상(理想)과 이용자 봉사에 대한 보람만으로 나의 인생을 걸기에 사서직은 너무 사소해 보인다	-1.03
7.	사서직은 정보제공의 서비스직이고 보살피는 직업이므로, 권위적이고 핵심적이기 보다는 주변적이고 보조자적인 역할만 수행할 뿐이다	-1.11
27.	사서업무는 전문적 교육 경험없이도 수행가능하다고 생각한다	-1.12
5.	전문적 주제배경을 가진 전문이용자들의 입지에 비해 사서인 나는 상대적인 콤플렉스가 있게 된다	-1.16
25.	사서직 업무는 기능적이고 창조적 사고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1.60
4.	도서관계 외에서는 사서직 종사자라고 밝히기가 망설여진다	-2.10



장치가 필요하다(진술문 8)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사서직의 존립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적합성있는 서비스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본다(진술문 31). 따라서 투철한 봉사정신(진술문 26)과 정보봉사의 제공(진술문 16)이라는 사서직의 전통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서직은 업무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있으며(진술문 17), 나의 적성과 가치관과 일치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아실현의 장(진술문 9)이며 대외적으로도 사서직 종사자로서 자부심(진술문 4)이 강하다. 정보서비스는 주변적이고 보조적(진술문 7)인 일이거나 사소한 일(진술문 21)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주제배경을

가진 이용자들에게 상대적인 열등감이 있기 보다는(진술문 5) 정보문제 해결의 조력가로서 뿌듯함을 갖는다(진술문 2).

3. 2. 3 진보형: 유형3

Z-score +1.00 수준에서 유형3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진술문은 총 12개 였으며, 그 중 응답자들이 강하게 동의하는 진술문 항목은 9, 12, 17, 34의 순이며, 반대로 강하게 부정하는 항목은 13, 29, 15, 6 등의 순이다(표 4 참조).

유형3의 진술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유형3은 사서직을 능력발휘를 통한 적극적인 자아실현의 장으로서 보고 있으며, 정보기술의 적극적 수용에 의해 사서직의 전문성 확보가 가

<표 4> 유형3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1.00 이상)

번호	진술문	Z-Score
9.	사서직은 나의 적성과 가치관에 맞기 때문에 나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직종이다	1.83
12.	도서관에서의 정보기술의 수용은 사서직의 자아 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1.81
17.	사서업무는 나의 창의성과 독자적인 판단력을 근거로 일을 처리하고 추진할 수 있어 행복하고 즐겁다	1.58
34.	사서직은 계속적인 교육지원이 없으면 시대적 발전추세에 도태되고 현실에 안주되기 쉬운 직종이라고 생각한다	1.34
2.	이용자의 정보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가라고 생각하면 뿌듯하다	1.21
16.	사회가 변해도 사서직의 고유한 본질은 정보제공 서비스에 있다고 생각한다	1.14
3.	직업선택의 기회가 있다면 사서직을 다시 선택할 생각은 전혀없다	-1.11
25.	사서직 업무는 기능적이고 창조적 사고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1.37
6.	사서직이 소속기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종종 제외되는 경향은 사서직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고, 사서직무에만 전념하라는 조직적 배려라고 생각한다	-1.42
15.	내가 사서직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1.48
29.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서 인성 및 직업윤리 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1.58
13.	정보기술의 발달 등에 따른 제 사회적 변화는 사서직에서의 업무범위의 확장 뿐 아니라 사서직의 존폐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생각한다	-1.74

능하다고 보는 진보형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유형3은 무엇보다도 사서직은 자신의 적성과 가치관이 일치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아실현의 장(진술문 9)으로, 특히 정보기술의 적극적 수용은 사서직의 존재문제를 야기시키기(진술문 13) 보다는 자아 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진술문 12). 따라서 업무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있고(진술문 17) 정보서비스에 본질을 두는 사서직(진술문 16)은 계속적 교육(진술문 34)과 인성 및 직업윤리교육(진술문 29)이 중요하다. 이들은 정보문제 해결의 조력자(진술문 2)로서 자부심이 있으며, 사서직의 전문성에 대한 몰이해로 소속기관의

권력구조에서 제외되는 경향은 있으나(진술문 6) 사서로서의 성공의 가능성(진술문 15)을 확신하며, 차후에라도 사서직을 재선택할 의사(진술문 3)를 가지고 있다.

3. 2. 4 현실비판형 : 유형4

Z-score +-1.00 수준에서 유형4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진술문은 총 13개 였으며, 응답자들이 강하게 동의하는 진술문 항목은 18, 23, 8, 13, 34의 순이며, 반대로 강하게 부정하는 항목은 6, 15, 30, 35, 29 등의 순이다(표 5 참조).

이를 종합하면, 유형4는 사서직을 둘러싼

<표 5> 유형4가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1.00 이상)

번호	진술문	Z-Score
18.	우리 현실상 주제전문가 양성이 어렵다 보니 사서직은 명목상 전문직 일 뿐, 사서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1.66
23.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는 현재의 정보기술의 발달 등 시대적 제 변화추세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63
8.	사서직의 전문성 확립을 위해서는 국가고시도입이나 주제 전문가 육성 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60
13.	정보기술의 발달 등에 따른 제 사회적 변화는 사서직에서의 업무범위의 확장 뿐 아니라 사서직의 존재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생각한다	1.32
34.	사서직은 계속적인 교육지원이 없으면 시대적 발전추세에 도태되고 현실에 안주되기 쉬운 직종이라고 생각한다	1.22
32.	사서는 도서관 업무지향적이기 때문에 소속기관의 의사결정권이나 행정권 등에서 소외당하는 경향이 많다고 생각한다	1.15
31.	사서직이 유지되려면 사회적으로 적합성있는 서비스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11
4.	도서관계 외에서는 사서직 종사자라고 밝히기가 망설여진다	-1.09
29.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서 인성 및 직업윤리 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1.22
35.	사서직의 급여수준이나 승진제도 등 제 근무여건은 만족스럽다	-1.30
30.	사서직은 전문지식보다는 친절봉사가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1.30
15.	내가 사서직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1.49
6.	사서직이 소속기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종종 제외되는 경향은 사서직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고, 사서직무에만 전념하라는 조직적 배려라고 생각한다	-2.30

제 환경에 대해 비판적으로 관조하고 있는 현실 비판형으로 명명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사서직은 주제전문가 양성의 어려움으로 자긍심 없는 명목상 전문직이며(진술문 18),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는 제 사회적 변화추세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고 있으며(진술문 23), 국가적 차원의 제도 확립으로 사서직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진술문 8). 정보기술의 발달이 사서직의 존폐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진술문 13), 친절봉사만이 사서직의 최고 덕목(진술문 30)이 못되며, 사서직의 계속교육(진술문 34)과 사회적으로 적합성있는 서비스의 개발(진술문 31), 인성 및 직업윤리 교육(진술문 29)이 중요하다. 소속기관에서 전문성의 몰이해(진술문 6)와 도서관업무의 내부지향성으로 권력구조에서 배제되는 경향(진술문 32)이 있으며 제 근무여건은 불만족스럽다(진술문 35). 그럼에도 사서직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포기하지는 않고(진술문 15)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사서직에 자부심(진술문 4)을 가지고 있다.

### 3. 3 사서직 이미지의 유형별 차이점

각 유형간의 성격을 Z-score 차이에 따라 비교함으로써 각 유형의 특성을 보다 명확히

비교해 보고자 한다. <표 6>에서 유형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유형1>과 <유형4>가 0.579로 그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형1>과 <유형2>는 0.491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형3>과 <유형4>는 0.28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시말해 인자분석을 통해 나타난 4개의 유형 중 유형1과 유형4는 비슷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으며, 유형3과 유형4의 성격이 가장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각 유형간 상관관계는 아래의 <표 6>와 같다.

#### 3. 3. 1 유형1과 유형2의 특성 비교

유형1과 유형2가 표준점수 Z-score +- 1.00 수준에서 차이를 보인 진술문은 모두 13개 이다. 이 중 긍정적 차원에서 차이를 보인 것은 6개, 부정적 차원에서 차이를 보인 것은 7개 이다(표 7 참조).

사서직에 관한 양가감정(ambivalent)을 가지고 있는 현실인식형인 유형1과 서비스 지향적이며 사서직의 공적 전문성 확보를 주장하는 자긍형인 유형2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현실인식형인 유형1은 자긍형인 유형2에 비해 사서직을 주제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명목상의 전문직으로 보고 있으며(진술문 18), 주제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대해 상대적인 콤플렉스(진술문 5)와 정보서비스직으로서의 주변적이고 보조자적 역할(진

<표 6> 유형간의 상관계수

유형	1	2	3	4
1	1.000	.491	.324	.579
2	.491	1.000	.474	.431
3	.324	.474	1.000	.283
4	.579	.431	.283	1.000

술문 7)과 조직에서 비가시적 역할(진술문 20)을 담당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유형1은 유형2보다 사서직은 인생을 걸기에는 너무 사소하며(진술문 21), 사서로서의 성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진술문 15). 또한 현실인식형인 유형1은 자긍형인 유형2보다 사서직의 제 근무여건(진술문 35)이 불만족스러우며, 사서직은 나의 능력을 발휘할 만한 직종이 못되며(진술문 9), 여성 우세성이 사서직 발전의 지체요인(진술문 14)이 되지 않는나, 업무의 창의성과 자율성(진술문 17)이

부족하며, 이용자로부터 존경(진술문 19)받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3. 3. 2 유형1과 유형3의 특성 비교

유형1과 유형3이 Z-score +1.00 수준에서 차이를 보인 진술문은 모두 16개 이다. 이 중 긍정적 차원에서 차이를 보인 것은 9개, 부정적 차원에서 차이를 보인 것은 7개 이다(표 8 참조).

현실인식형인 유형1과 정보기술 수용의 진보형인 유형3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항목은

<표 7> 유형1과 유형2의 특성 비교 (+1.00 이상)

번호	진술문	1	2	diff
18.	우리 현실상 주제전문가 양성이 어렵다 보니 사서직은 명목상 전문직 일 뿐, 사서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727	-1.022	1.749
5.	전문적 주제배경을 가진 전문이용자들의 입지에 비해 사서인 나는 상대적인 콤플렉스가 있게 된다	.407	-1.157	1.563
7.	사서직은 정보제공의 서비스직이고 보살피는 직업이므로, 권위적이고 핵심적이기 보다는 주변적이고 보조자적인 역할만 수행 할 뿐이다	.223	-1.113	1.336
20.	사서나 도서관은 정보원을 이용하여 최종산물을 생산해 내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소속기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 하지 못하며 그 중요성을 인식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89	-.077	1.266
21.	사서직에 대한 이상(理想)과 이용자 봉사에 대한 보람만으로 나의 인생을 걸기에 사서직은 너무 사소해 보인다	.035	-1.026	1.062
15.	내가 사서직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610	-.449	1.059
1.	사서직은 전문가로서 사회적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1.926	-.795	-1.131
8.	사서직의 전문성 확립을 위해서는 국가고시도입이나 주제 전문가 육성 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761	1.964	-1.203
19.	사서직은 이용자들에게 전문가로서 존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1.800	-.282	-1.518
17.	사서업무는 나의 창의성과 독자적인 판단력을 근거로 일을 처리하고 추진할 수 있어 행복하고 즐겁다	-.475	1.115	-1.590
14.	사서직에서의 여성인력 우세성은 사서직 발전에 지체요인이 되어왔다고 생각한다	-1.323	.340	-1.664
9.	사서직은 나의 적성과 가치관에 맞기 때문에 나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직종이다	-.462	1.213	-1.676
35.	사서직의 급여수준이나 승진제도 등 제 근무여건은 만족스럽다	-1.602	.617	-2.219

‘내가 사서직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진술문 15)이다. 유형1이 긍정적인데 반하여 유형3은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현실 인식형인 유형1은 진보형인 유형3보다 사서직에서의 성공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며(진술문 15), 정보기술의 발달은 사서직의 존재문제를 야기시키며(진술문 13), 사서직의 전문

성 확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본다(진술문 8). 사서직은 소속기관에서 주변적 역할을 수행하며(진술문 20), 문헌정보학의 교육과정에 사회변화추세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진술문 23), 주제전문가가 못되는 사서직은 명목상 전문직이라고 생각한다(진술문 18). 또한 유형1은 유형3에 비해 사서직은 사회적으로 존경과 인정을 받고 있

〈표 8〉 유형1과 유형3의 특성 비교 (+-1.00 이상)

번호	진술문	1	3	diff
15.	내가 사서직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610	-1.476	2.086
13.	정보기술의 발달 등에 따른 제 사회적 변화는 사서직에서의 업무범위의 확장 뿐 아니라 사서직의 존재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생각한다	.163	-1.739	1.902
8.	사서직의 전문성 확립을 위해서는 국가고시도입이나 주제 전문가 육성 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761	-.819	1.580
20.	사서나 도서관은 정보원을 이용하여 최종산물을 생산해 내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소속기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지 못하며 그 중요성을 인식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189	-.151	1.340
26.	사서의 자질은 투철한 봉사정신을 토대로 전문적인 주제배경, 폭넓은 교양과 정보기술 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218	.957	1.261
3.	직업선택의 기회가 있다면 사서직을 다시 선택할 생각은 전혀 없다	.100	-1.108	1.208
23.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는 현재의 정보기술의 발달 등 시대적 제 변화추세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64	-.985	1.148
29.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서 인성 및 직업윤리 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517	-1.583	1.066
18.	우리 현실상 주제전문가 양성이 어렵다 보니 사서직은 명목상 전문직 일 뿐, 사서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727	-.313	1.040
30.	사서직은 전문지식보다는 친절봉사가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735	.473	-1.207
35.	사서직의 급여수준이나 승진제도 등 제 근무여건은 만족스럽다	-1.602	-.277	-1.324
12.	도서관에서의 정보기술의 수용은 사서직의 자아 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252	1.812	-1.560
1.	사서직은 전문가로서 사회적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1.926	-.322	-1.604
17.	사서업무는 나의 창의성과 독자적인 판단력을 근거로 일을 처리하고 추진할 수 있어 행복하고 즐겁다	-.475	1.584	-2.059
9.	사서직은 나의 적성과 가치관에 맞기 때문에 나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직종이다	-.462	1.827	-2.290
19.	사서직은 이용자들에게 전문가로서 존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1.800	.650	-2.450

지 못하다고 생각한다(진술문 19, 1). 그러나 유형3은 사서직은 나의 능력발휘의 장이며(진술문 9), 업무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있으며(진술문 17), 정보기술의 수용이 사서직의 자아존중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진술문 12).

3. 3. 3 유형1과 유형4의 특성 비교

유형1과 유형4는 Z-score +-1.00 수준에서 차이를 보인 진술문은 모두 11개 이다. 이 중 긍정적 차원에서 차이를 보인 것은 6개, 부정적 차원에서 차이를 보인 것은 5개 이다. 사서직에 양가감정(ambivalent)을 가지고 있는 현실인식형인 유형1과 현실비판형인 유형4는 내가 사서직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고 생각한다'(진술문 15)에서 가장 많은 의견 차이를 나타내었다. 유형1이 강한 긍정인데 반하여 유형4는 강한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유형1은 유형4에 비하여 주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체계적인 정보봉사에 어려움을 경험한 바 있고(진술문 24), 소속기관에서 사서직은 주변적 역할로 인식되고 있으며(진술문 20), 정보제공 서비스직으로서의 주변적 역할과 보조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진술문 7)고 생각한다. 또한 유형4는 유형1에 비해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이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진술문 23)는 점에 강한 동의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문적 교육경험이 없어도 사서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진술문 27)는 점과 정보기술의 발달이 사

<표 9> 유형1과 유형4의 특성 비교 (+-1.00 이상)

번호	진술문	1	4	diff
15.	내가 사서직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610	-1.487	2.097
24.	주제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봉사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1.314	-.288	1.602
6.	사회가 변해도 사서직의 고유한 본질은 정보제공 서비스에 있다고 생각한다	1.915	.428	1.487
26.	사서의 자질은 투철한 봉사정신을 토대로 전문적인 주제배경, 폭넓은 교양과 정보기술 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218	.833	1.384
20.	사서나 도서관은 정보원을 이용하여 최종산물을 생산해 내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소속기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지 못하며 그 중요성을 인식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189	-.091	1.281
7.	사서직은 정보제공의 서비스직이고 보살피는 직업이므로, 권위적이고 핵심적이기 보다는 주변적이고 보조자적인 역할만 수행 할 뿐이다	.223	-.828	1.052
19.	사서직은 이용자들에게 전문가로서 존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1.800	-.798	-1.002
1.	사서직은 전문가로서 사회적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1.926	-.783	-1.143
13.	정보기술의 발달 등에 따른 제 사회적 변화는 사서직에서의 업무범위의 확장 뿐 아니라 사서직의 존재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생각한다	.163	1.323	-1.160
27.	사서업무는 전문적 교육 경험없이도 수행가능하다고 생각한다	-1.002	.234	-1.236
23.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는 현재의 정보기술의 발달 등 시대적 제 변화추세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64	1.630	-1.466

서직의 존재문제를 야기시킨다(진술문 13)는 점에 동의를 나타내고 있다.

3. 3. 4 유형2와 유형3의 특성 비교

유형2와 유형3는 Z-score + -1.00 수준에서 차이를 보인 진술문은 모두 10개 이다. 이 중 긍정적 차원에서 차이를 보인 것은 5개, 부정적 차원에서 차이를 보인 것은 5개 이다(표 10 참조).

자극형인 유형2와 정보기술 수용형인 유형3은 '사서직의 전문성 확립을 위해서는 국가고 시도입이나 주제 전문가 육성 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술문 8)에서 강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형2가 강한 동의를 나타내

고 있는데 반하여 유형3은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정보기술수용형인 유형3은 자극형인 유형2에 비하여 정보기술의 발달이 사서직의 존재문제를 야기시킨다(진술문 13)는 의견에 강하게 부정적이며, 사서직에서의 성공가능성(진술문 15)을 긍정적으로 보며, 도서관에서의 정보기술의 수용(진술문 12, 13)에 긍정적이다. 이용자에 대한 상대적 콤플렉스(진술문 5)는 없으며, 정보봉사직이 주변적이고 보조자적 역할(진술문 7)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3. 3. 5 유형2와 유형4의 특성 비교

유형2와 유형4는 Z-score + -1.00 수준에서 차이를 보인 진술문은 모두 15개 이다. 이 중

〈표 10〉 유형2와 유형3의 특성 비교 (+ -1.00 이상)

번호	진술문	2	3	diff
8.	사서직의 전문성 확립을 위해서는 국가고시도입이나 주제 전문가 육성 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64	-.819	2.784
13.	정보기술의 발달 등에 따른 제 사회적 변화는 사서직에서의 업무범위의 확장 뿐 아니라 사서직의 존재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생각한다	-.076	-1.739	1.663
14.	사서직에서의 여성인력 우세성은 사서직 발전에 지체요인이 되어왔다고 생각한다	.340	-.844	1.185
23.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는 현재의 정보기술의 발달 등 시대적 제 변화추세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25	-.985	1.110
15.	내가 사서직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449	-1.476	1.027
21.	사서직에 대한 이상(理想)과 이용자 봉사에 대한 보람만으로 나의 인생을 걸기에 사서직은 너무 사소해 보인다	-1.026	-.011	-1.016
7.	사서직은 정보제공의 서비스직이고 보살피는 직업이므로, 권위적이고 핵심적이기 보다는 주변적이고 보조자적인 역할만 수행 할 뿐이다	-1.113	.525	-1.638
4.	도서관계 외에서는 사서직 종사자라고 밝히기가 망설여진다	-2.097	-.377	-1.720
5.	전문적 주제배경을 가진 전문이용자들의 입지에 비해 사서인 나는 상대적인 콤플렉스가 있게 된다	-1.157	.705	-1.862
12.	도서관에서의 정보기술의 수용은 사서직의 자아 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235	1.812	-2.047

긍정적 차원에서 차이를 보인 것은 7개, 부정적 차원에서 차이를 보인 것은 8개 이다(표 11 참조).

자긍형인 유형 2와 현실비판형인 유형4가 가장 강한 의견차이를 보인 것은 '사서직의 급여수준이나 승진제도 등 제 근무여건은 만족스럽다' (진술문 35) 라는 항목으로 유형4는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유형4는 유형2에

비하여 사서직의 제 사회적 변화에 둔감하고 무지한 경향이 있다(진술문 10)는 의견에 반대하며, 정보기술의 발달이 사서직의 존폐를 야기시킨다(진술문 13)는 항목에 동의하며,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이 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진술문 23), 전문적 주제배경의 부족으로 이용자에게 비해 상대적 콤플렉스가 있으며(진술문 5), 주제전문가가 아

〈표 11〉 유형2와 유형4의 특성 비교 (+-1.00 이상)

번호	진술문	2	4	diff
35.	사서직의 급여수준이나 승진제도 등 제 근무여건은 만족스럽다	.617	-1.298	1.915
6.	사서직이 소속기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종종 제외되는 경향은 사서직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고, 사서직무에만 전념하라는 조직적 배려라고 생각한다	-6.29	-2.302	1.673
10.	도서관을 둘러싼 제 사회의 변화에 사서직은 대체로 둔감하고 무지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306	-.874	1.180
17.	사서업무는 나의 창의성과 독자적인 판단력을 근거로 일을 처리하고 추진할 수 있어 행복하고 즐겁다	1.115	-.019	1.134
26.	사서의 자질은 투철한 봉사정신을 토대로 전문적인 주제배경, 폭넓은 교양과 정보기술 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895	.833	1.062
15.	내가 사서직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449	-1.487	1.039
9.	사서직은 나의 적성과 가치관에 맞기 때문에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종이다	1.213	.193	1.020
4.	도서관계 외에서는 사서직 종사자라고 밝히기가 망설여진다	-2.097	-1.091	-1.006
11.	사서직은 제 사회분야를 움직일만한 권력도 없으며, 적절한 지도자나 선도적인 인물도 없으며 이론적 기반을 제시해 줄 만한 문헌정보학 학자도 없다고 생각한다	-.112	.963	-1.075
27.	사서업무는 전문적 교육 경험없이도 수행가능하다고 생각한다	-1.116	.234	-1.350
13.	정보기술의 발달 등에 따른 제 사회적 변화는 사서직에서의 업무범위의 확장 뿐 아니라 사서직의 존폐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생각한다	-.076	1.323	-1.399
23.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는 현재의 정보기술의 발달 등 시대적 제 변화추세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25	1.630	-1.505
25.	사서직 업무는 기능적이고 창조적 사고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1.596	-.059	-1.536
5.	전문적 주제배경을 가진 전문이용자들의 입지에 비해 사서인 나는 상대적인 콤플렉스가 있게 된다	-1.157	.406	-1.563
18.	우리 현실상 주제전문가 양성이 어렵다 보니 사서직은 명목상 전문직 일 뿐, 사서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1.022	1.663	-2.685



년 사서직은 명목상 전문직이라는 항목에 동의하고 있다(진술문 18). 그러나 유형2는 유형4에 비하여 사서직이 소속기관의 권력구조에서 제외되는 경향은 전문성을 인정한 조직적 배려(진술문 6)라는 의견에 강력하게 부정하며, 사서직의 고유본질은 정보제공서비스(진술문 16)라는 의견에 강하게 동의한다. 사서업무는 창의성과 자율성이 있으며(진술문 17), 사서직은 투철한 봉사정신을 근거로 해야 한다(진술문 26)는 항목에 동의한다. 전문적 교육경험없이 수행가능하다(진술문 27)고

생각하지 않으며, 기능적(진술문 25)이라는 항목에도 반대 한다. 또한 이용자에 대한 상대적 콤플렉스(진술문 5)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3. 3. 6 유형3과 유형4의 특성 비교

유형3과 유형4는 Z-score +-1.00 수준에서 차이를 보인 진술문은 모두 13개 이다. 이 중 긍정적 차원에서 차이를 보인 것은 7개, 부정적 차원에서 차이를 보인 것은 6개 이다(표 12 참조).

〈표 12〉 유형3과 유형4의 특성 비교 (+-1.00 이상)

번호	진술문	3	4	diff
30.	사서직은 전문지식보다는 친절봉사가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473	-1.303	1.776
9.	사서직은 나의 적성과 가치관에 맞기 때문에 나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직종이다	1.827	.193	1.634
17.	사서업무는 나의 창의성과 독자적인 판단력을 근거로 일을 처리하고 추진할 수 있어 행복하고 즐겁다	1.584	-.019	1.604
19.	사서직은 이용자들에게 전문가로서 존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650	-.798	1.448
7.	사서직은 정보제공의 서비스적이고 보살피는 직업이므로, 권위적이고 핵심적이기 보다는 주변적이고 보조자적인 역할만 수행 할 뿐이다	.525	-.828	1.353
12.	도서관에서의 정보기술의 수용은 사서직의 자아 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1.812	.541	1.270
35.	사서직의 급여수준이나 승진제도 등 제 근무여건은 만족스럽다	-.277	-1.298	1.020
25.	사서직 업무는 기능적이고 창조적 사고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1.367	-.059	-1.307
11.	사서직은 제 사회분야를 움직일만한 권력도 없으며, 적절한 지도자나 선도적인 인물도 없으며 이론적 기반을 제시해 줄 만한 문헌정보학 학자도 없다고 생각한다	-.695	.963	-1.658
18.	우리 현실상 주제전문가 양성이 어렵다 보니 사서직은 명목상 전문직 일 뿐, 사서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313	1.663	-1.976
8.	사서직의 전문성 확립을 위해서는 국가고시도입이나 주제 전문가 육성 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819	1.604	-2.424
23.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는 현재의 정보기술의 발달 등 시대적 제 변화추세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985	1.630	-2.615
13.	정보기술의 발달 등에 따른 제 사회적 변화는 사서직에서의 업무범위의 확장 뿐 아니라 사서직의 존재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생각한다	-1.739	1.323	-3.062

정보기술 수용형인 유형3과 현실비판형인 유형4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서직이 전문지식보다는 친절봉사가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진술문 30)는 항목으로 유형4는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유형3은 유형4와는 달리 사서직은 능력 발휘의 장(진술문 9)이며, 업무의 창의성과 자율성(진술문 17)이 있으며, 전문가로서 존경을 받고 있다고(진술문 19) 생각하며, 정보기술의 수용이 사서직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진술문 12)는 항목에 강하게 동의하고 있다. 현실비판형인 유형4는 유형3과는 달리 정보제공의 서비스적인 사서직이 주변적이고 보조자적인 역할 수행(진술문 7)이라는 항목에 반대하고 있으며, 사서직과 문헌정보학 분야에는 제 사회분야를 움직일만한 권력이나 선도적인 인물, 이론적 기반을 제시해 줄 만한 문헌정보학 학자도 없다(진술문 11)는 항목에 동의하고 있으며, 주제전문가가 아닌 사서직은 명목상 전문직이며(진술문 18),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노력이 요구되며(진술문 8),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진술문 23), 정보기술의 발달은 사서직의 존폐문제를 야기시킨다(진술문 13)는 항목에 동의하고 있다.

### 3. 4 사서직 이미지의 유형별 공통점

35개의 진술문 중 모든 응답자들이 공통적으로 합의를 이룬 일치항목은 7개였다(표 13 참조). 즉 이 7개의 진술문은 유형에 상관없이 공유되는 사서직 이미지라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 사서들이 공유하는 이미지는

사서직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이다. Z-score +1.00 의 차원에서, 사서들이 강하게 공유하고 있는 사서직의 이미지는 정보서비스직으로서 사회적으로 적합성있는 서비스의 개발(진술문 31)과 정보문제해결의 조력가(진술문 2)라는 측면이다. 사회적으로 적합성있는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는 측면은 사서직에게 부여된 고유한 사회적 역할이자 동시에 사서직의 존립 근거가 되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되어지며, 또한 정보문제해결의 조력가라는 측면은 사서직의 가치와 보람으로, 사서직을 지탱시키는 직업적 만족감이라고 파악되어진다.

이외에도 공유되는 항목은 사서직은 '계속적인 교육지원이 없으면 시대적 발전추세에도태되고 현실에 안주되기 쉬운 직종이라고 생각한다' (진술문 34), '사서는 도서관 업무 지향적이기 때문에 소속기관의 의사결정권이나 행정권 등에서 소외당하는 경향이 많다고 생각한다' (진술문 32), '사서직은 업무수행과 더불어 상호간의 인간관계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 (진술문 28) 등이다. 부정적 차원에서 합의를 이룬 항목은 2개인데, 여기에는 '만일 퇴직한다면 사서직과 연계한 다른 직업을 찾기도 어려우며, 사서직 종사자들은 사서직 이외의 타 직종으로 전환하면 성공하기 힘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진술문 33), '사서직은 현실상 단순노무직과 유사한 서비스직종이라고 생각한다' (진술문 22)이다. 이러한 진술문에 대한 부정적 동의는 사서직이 융통성없는 직종이거나 사회와 고립되어 존재하는 직업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다.

〈표 13〉 각 유형간 일치 항목 (+-1.00 이상)

번호	진술문	Z-Score
31.	사서직이 유지되려면 사회적으로 적합성있는 서비스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05
2.	이용자의 정보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가라고 생각하면 뿌듯하다	1.04
34.	사서직은 계속적인 교육지원이 없으면 시대적 발전추세에 도태되고 현실에 안주되기 쉬운 직종이라고 생각한다	.96
32.	사서는 도서관 업무지향적이기 때문에 소속기관의 의사결정권이나 행정권등에서 소외당하는 경향이 많다고 생각한다	.91
28.	사서직은 업무수행과 더불어 상호간의 인간관계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63
33.	만일 퇴직한다면 사서직과 연계한 다른 직업을 찾기도 어려우며, 사서직 종사자들은 사서직 이외의 타 직종으로 전환하면 성공하기 힘든 사람들라고 생각하고 있다	-.04
22.	사서직은 현실상 단순노무직과 유사한 서비스직종이라고 생각한다	-.68

####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사서들의 주관성 연구를 통해 사서들이 지각하는 사서직 이미지의 구조적 유형을 식별하고 그 차이점과 유사점을 탐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성 연구 방법인 Q-방법론이 적용되었으며, 사서들을 대상으로 사서직에 관한 다양한 담론과 관련 문헌의 조사를 통해 35개의 진술문이 구성되었으며, 24명의 공공 및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본 연구결과 독특하지만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며, 현재의 시공간적 맥락을 반영한 4개의 이미지 유형이 식별되었다. 사서직에서의 이러한 4개의 이미지유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서들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 2) 식별된 유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1에 속하는 응답자들은 사서직에 관한 양가 감정(ambivalent)을 가지고 있는 현실인식형으로, 이들은 정보봉사직이라는 사서직의 고유성을 강하게 긍정하되 사서직의 물리적 및 사회적 여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며, 특히 의사결정구조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유형2는 서비스 지향적이며 사서직의 공적 전문성 확보를 주장하는 자긍형으로, 이들은 사서직의 전문성 확립을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사서직의 존속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적합성 있는 서비스의 개발을 제시하고 있다. 유형3은 사서직을 적극적인 능력 발휘의 장으로 보고 있으며, 정보기술의 적극적 수용에 의해 사서직의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는 진보형이다. 유형4는 사서직을 둘러싼 제 환경에 대해 비판적으로 관조하고 있는 현실 비판형이다.

- 3) 이들은 정보서비스직으로서 사회적으로 적합성있는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는 측면과 정보문제해결의 조력가라는 점을 사서직의 이미지로서 공유하고 있다.
- 4) 이들 유형을 통해 살펴 본 사서직 이미지의 본질은 정보제공 서비스에 있다. 정보제공 서비스직이라는 점은 일군(一群)의 사서들에게는 만족의 요인이기도 하지만(유형2, 3), 반면에 다른 사서들에게는 갈등의 요인이기도 하다(유형1, 4). 그러나 갈등의 직접적 원인은 정보서비스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서비스직이 갖는 사회적으로 낮은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물리적 환경요인(의사결정권 제외, 근무조건)에 기인한다.
- 5) 4가지 유형 모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사서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비록 아직까지는 사서직이 정당한 사회적 인정이나 주목은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서직 종사자들이 갖는 내부적 자부심이나 결속력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서들은 그들 직업의 사회적 기여도와 그 가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러한 점이 그들로 하여금 사서직을 지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4개의 독특한 사서직의 이미지 유형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현실세계에서 사서직의 이미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을 갖는다는 것이지 절대적인 결과는 아니다.

둘째, Q-진술문을 구성함에 있어 현직 사서들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서면조사를 통해 사서들의 주관적 의견들이 전적으로 반영된 장점은 있지만, 심층적인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Q-분류시 참여사서들과의 심층적인 인터뷰가 수행되어질 필요성이 있음에도 전자메일 서베이로 대체되었다는 점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 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가설검정 방법이 아니라 가설생성(abduction)적인 연구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들을 가설로 설정하여 이를 검증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수행되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사서직 이미지 연구는 대상과 방법론을 다양하게 하여 수행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서직 이미지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질 수도 있으며, 현재의 도서관 환경을 반영하여 이용자가 인식하는 도서관 이미지 연구도 수행되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서직이나 도서관의 이미지 결정요인을 식별하는 연구도 수행되어질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김홍규. 1990. 『Q방법론의 이해와 적용: 광고 연구를 중심으로』. 서울: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 김홍규. 1993. "Q방법론의 과학정신탐구." 『言論學報』, 한양대 언론문화연구소. 13: 5-44.
- 백용덕. 1999. 『Q방법론의 이론과 실제』. 인천: 인하대학교 출판부.
- 윤은자. 1995. 『간호단위 관리자의 전문간호이미지 연구: Q-방법론적 접근』.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 이은철. 1987. 도서관학과 재학생들의 도서관과 사서직에 대한 인식도 조사연구. 『국회도서관보』, (3/4): 46-60.
- 조찬식, 박민영. 1999. 대중문화에 나타난 도서관과 사서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소설과 영화속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도서관』, 54(2): 103-122.
- 최현철. 1993. "Q방법론과 언론학 연구." 『言論學報』, 한양대 언론문화연구소. 13: 45-78.
- 하봉준. 1999. 제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미지 요인에 관한 연구, 『광고연구』, 42: 49-74.
- 한국도서관협회. 2001. 『한국도서관 통계 2001』. 서울: 동협회.
- Carmichael, James V., Jr. 1992. "The male librarian and the feminine image: A survey of stereotype, status, and gender perception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4: 411-446.
- Harris, Roma M. and Christina Sue-Chan. 1988. "Cataloging and reference, circulation and shelving: Public library users and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f librarianship."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0: 95-107.
- Hernon, Peter and Maureen Pastine. 1977. "Student perceptions of academic librarian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38: 129-139.
- Morrisey, Locke J. and Donald O. Case. 1988. "There goes my image: The perception of male librarians by colleague, student, and self." *College & Research Libraries* 5: 453-466.
- Prins, Hans and Wilco de Gier. 1995. *The image of the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 How we see ourselves*. IFLA Publications, vol. 71. London : K.G. Saur.
- Stephenson, William. 1953. *The study of behavior*.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 부록 : 각 유형에 대한 진술항목별 표준점수

번호	진술 항목	유형별 Z-score			
		유형1 N=9	유형2 N=6	유형3 N=4	유형4 N=5
1.	사서직은 전문가로서 사회적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1.9	-.8	-.3	-.8
2.	이용자의 정보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가라고 생각하면 뿌듯하다	1.0	1.1	1.2	.8
3.	직업선택의 기회가 있다면 사서직을 다시 선택할 생각은 전혀 없다	.1	-.8	-1.1	-.6
4.	도서관계 외에서는 사서직 종사자라고 밝히기가 망설여진다	-1.1	-2.1	-.4	-1.1
5.	전문적 주제배경을 가진 전문이용자들의 입지에 비해 사서인 나는 상대적으로 콤플렉스가 있게 된다	.4	-1.2	.7	.4
6.	사서직이 소속기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종종 제외되는 경향은 사서직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고, 사서직무에만 전념하라는 조직적 배려라고 생각한다	-1.4	-.6	-1.4	-2.3
7.	사서직은 정보제공의 서비스직이고 보살피는 직업이므로, 권위적이고 핵심적이기 보다는 주변적이고 보조자적인 역할만 수행 할 뿐이다	.2	-1.1	.5	-.8
8.	사서직의 전문성 확립을 위해서는 국가고시도입이나 주제 전문가 육성 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8	2.0	.8	1.6
9.	사서직은 나의 적성과 가치관에 맞기 때문에 나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직종이다	-5	1.2	1.8	2
10.	도서관을 둘러싼 제 사회의 변화에 사서직은 대체로 둔감하고 무지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5	.3	-2	-9
11.	사서직은 제 사회분야를 움직일만한 권력도 없으며, 적절한 지도자나 선도적인 인물도 없으며 이론적 기반을 제시해 줄 만한 문헌정보학 학자도 없다고 생각한다	.0	-.1	-.7	1.0
12.	도서관에서의 정보기술의 수용은 사서직의 자아 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3	-.2	1.8	0.5
13.	정보기술의 발달 등에 따른 제 사회적 변화는 사서직에서의 업무범위의 확장 뿐 아니라 사서직의 존재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생각한다	.2	-.0	-1.7	1.3
14.	사서직에서의 여성인력 우세성은 사서직 발전에 지체요인이 되어왔다고 생각한다	-1.3	.3	-.8	-.6
15.	내가 사서직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6	-.4	-1.5	-1.5
16.	사회가 변해도 사서직의 고유한 본질은 정보제공 서비스에 있다고 생각한다	1.9	1.6	1.1	.4
17.	사서업무는 나의 창의성과 독자적인 판단력을 근거로 일을 처리하고 추진할 수 있어 행복하고 즐겁다	-5	1.1	1.6	-.0
18.	우리 현실상 주제전문가 양성이 어렵다 보니 사서직은 명목상 전문직 일 뿐, 사서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7	-1.0	-.3	1.7

번호	진술 항목	유형별 Z-score			
		유형1 N=9	유형2 N=6	유형3 N=4	유형4 N=5
19.	사서직은 이용자들에게 전문가로서 존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1.8	-.3	.7	-.8
20.	사서나 도서관은 정보원을 이용하여 최종산물을 생산해 내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소속기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지 못하며 그 중요성을 인식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2	-.0	-.2	-.0
21.	사서직에 대한 이상(理想)과 이용자 봉사에 대한 보람만으로 나의 인생을 걸기에 사서직은 너무 사소해 보인다	.0	-1.0	-.0	-.1
22.	사서직은 현실상 단순노무직과 유사한 서비스직종이라고 생각한다	-.7	-.7	-.8	-.5
23.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는 현재의 정보기술의 발달 등 시대적 제 변화추세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1	-1.0	1.6
24.	주제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봉사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1.3	.6	.4	-.3
25.	사서직 업무는 기능적이고 창조적 사고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8	-1.6	-1.4	-.0
26.	사서의 자질은 투철한 봉사정신을 토대로 전문적인 주제배경, 폭넓은 교양과 정보기술 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2	1.9	1.0	.8
27.	사서업무는 전문적 교육 경험없이도 수행가능하다고 생각한다	-1.0	-1.1	-.3	.2
28.	사서직은 업무수행과 더불어 상호간의 인간관계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	.9	.4	.8
29.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서 인성 및 직업윤리 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5	-.9	-1.6	-1.2
30.	사서직은 전문지식보다는 친절봉사가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7	-.4	.5	-1.3
31.	사서직이 유지되려면 사회적으로 적합성있는 서비스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6	1.5	1.0	1.1
32.	사서는 도서관 업무지향적이기 때문에 소속기관의 의사결정권이나 행정권등에서 소외당하는 경향이 많다고 생각한다	1.2	.5	.8	1.1
33.	만일 퇴직한다면 사서직과 연계한 다른 직업을 찾기도 어려우며, 사서직 종사자들은 사서직 이외의 타 직종으로 전환하면 성공하기 힘든 사람들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3	.1	.0	-.6
34.	사서직은 지속적인 교육지원이 없으면 시대적 발전추세에 도태되고 현실에 안주되기 쉬운 직종이라고 생각한다	.6	.7	1.3	1.2
35.	사서직의 급여수준이나 승진제도 등 제 근무여건은 만족스럽다	-1.6	.6	-.3	-1.3